

마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며 지혜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칭신 차려 껴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만 느낍니다.



칭신 차려 껴어서 신자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죄합니다.

그대 함께 가자

신윤식

그대 어디 있는가?
가을의 서늘한 기운으로
감나무마다 주황빛 미소 번지고
산도 강도 붉게 타오르듯
가슴을 내어
진리로 함께 불타고 싶은 자
어디 있는가?

함께 가자
가당치 않게
이리저리 계산 굴리는
머리일 람
개나 주어버리고
가자 이 세계를 넘어
허허로운 광야에
한 마리의 새가되어
믿음에 부요한 자 되게 하는
그 나라 향해
그대 함께 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1.6

발행호수 제19권 41호

여러분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생에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백 데나리온이 약 이천만원 정도의 액수임을 감안하면 여인의 행동은 미쳤거나 예수님에 대한 광신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귀한 향유를 허비해 버린 것에 대해 매우 분개했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여인이 귀한 향유를 무가치하게 허비해 버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귀한 향유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증언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13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귀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증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불의한 존재인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인생에 담겨 있는 자신의 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거룩과 온전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꿈과 모든 욕심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고 남은 인생 전부가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소원

주일오전설교
마 26:14-25

나는
아니지요

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루고자 하는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미래의 자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기 인생을 깨어 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여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같은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영광된 인생을 얻고자 한 제자들의 눈에 여인의 행동은 무가치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은 삼십에 넘기기로 한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 한 사람의 몸 값인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림으로써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동을 장례를 위한 것으로 칭찬하고 온 천하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영광된 자리에 도달하도록 도우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관심 밖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가치한 일로만 다가올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유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 26:31절에도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굳게 장담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결국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유다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자들은 이해하면서도 유다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들려 죽으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파는 유다까지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자신은 스승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인간의 대열에는 합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두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끝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평가 받고 싶어 합니다. 죄인의 대열에는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위선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죄인’ 이라고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외침과 함께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면 반발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판 사람에게 미칠 화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 할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이 불인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고 말씀하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이 ‘나는 아니지

요’ 라는 제자들의 말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팔아버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배신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에게서 배신의 가능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까요? 만약 자신에게서 배신의 가능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면 ‘나를 팔리라’ 는 말씀에 근심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당시 제자들은 거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실망감과 함께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했기에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회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인정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판 파렴치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의 큰 화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큰 화가 지나갔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17-19절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지나갔다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가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을 비껴간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의미를 유월절에서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산

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살고자 힘쓸 뿐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는 인생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는 마음이 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보인다고 해도 얼마든지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 버린 채 진리와 상관없이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나를 방어하는 뻔뻔함까지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인생은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처지가 다 다르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에서는 동일한 처지로 만납니다.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자신을 가려보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뻔뻔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뻔뻔함과 배신과 완악함을 파헤치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자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나는 아니지요' 라는 변명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파헤치고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행 2:42-47

교회의 정체성

(교회12강 10.30일 설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지역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동일한데 각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일하다고 해서 교회의 활동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 아래 있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파의 교회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이 힘이 아니고 소망이 아님을 증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힘으로 여기지 않아야 함을 증언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동일한 믿음으로 모인다면 사도처럼 세상의 외적 조건을 초월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이러한 길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돼 버렸고 교회를 자기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버린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도움이 되는 특별하고 새로운 찾는데 관심을 두면서 수시로 변하고

목적은 달라하는 교회들로 변모한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의 주된 목적이 되 버렸고,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며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를 만나기가 매우 귀한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실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을 왜 신자 되게 하시고, 왜 주를 알게 하시고, 왜 함께 모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다만 내 신앙 잘 지켜서 천국가면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단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쓴 것은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초대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과 문제가 있었고 파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문제점을 초대 교회 역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참으로 대단하게 비춰진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딤후 3: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고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세우는 일

이 교회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3:16-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전부로 여겨야 하며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굳게 세우는 일에 교회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결국 결론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으로 맺어지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교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교회주의' 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이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물론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사랑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증언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함께 하게

하신 뜻이고 목적일까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진리를 벗어나서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할 때 교회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과 사람의 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꿈꾸며 대형교회를 이룬 교회의 방식을 본받아 실행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있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목사를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동일한지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핑개치고 오직 진리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고후 11:2절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는 사도의 열심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열심히 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봉사하라고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굳건히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

수요일설교

렘 2:14-19

포로 된 이유

(6강 10.19일 설교)

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종일 수도 없고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도 씨종도 아닌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17절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라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떠남으로 자취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떠난 이유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길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포로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길에 있지 않고 헛된 것들 좇고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길로 떠났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과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을 책망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들 간 것입니다. 강대국과 친분을 맺어 그 힘의 보호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자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의 형편이 강대국에 비해 너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의 힘이 더 신뢰가 갔던 것이고, 자신들을 애굽과 앗수르의 힘에 의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입니다.

19절을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일 뿐 그들의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증거는 그들이 세상의 힘에 자신을 의탁하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반역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나 힘을 갖되자 하는 것 모두가 세상의 힘으로 자기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추구하는 자가 신앙의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자의 악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결국 그 행함을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친히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래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은 참으로 미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서 군사를 보냈던 애굽은 결국 흥해에 모두 수장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가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에 대한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은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는 지극히 선동적인 허황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형편이 계속될 때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대신 세상의 것을 보장해주는 다른 신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말씀 안에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된 생명의 세계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생명의 세계의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은 예수님의 피로써만 열리기 때문에 가장 힘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일 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현실의 문제에 급급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보다는 돈의 힘이 더 피부 깊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어린양의 피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도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개입되었을 뿐입니다. 신자는 오직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뿐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2장

교 독 : 86(요14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285장

성 경 : 마 26:14-25

말 씬 : 나는 아니지요(15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6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8장

기 도 : 유오자 집사

찬 송 : 410장

성 경 : 고전 1:1-3

말 씬 : 교회의 속성(교회1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셋째 주일(20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 12일(토) 오후 6시에 진석타워 뷔페식당에서 창훈이(이인혁, 임수희 장남)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박상윤 집사

교회의 존재 이유

현대 교회는 ‘교회주의’ 라는 이데올로기에 장악되어 교회의 존재목표와 목적을 교회에 둔 채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그리스도 증언’ 을 위한 길에서는 이탈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잃어버린 채 도리어 적과 함께 동참하듯 ‘교회물량주의’ 라는 악을 교회의 과제로 잘못 인식하고 그쪽으로만 향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을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문제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문제 해결을 단지 의식과 제도의 개혁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마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지금의 기독교는 교회 건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감으로 마치 교회가 흥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대를 향하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참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 돼버렸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역시 교회의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왜 필요하는가?’ 라고 물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라는 말을 한다.(행 17:22)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그들에게 전파한 것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행 22:24-25)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들에게 현대 교회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가 아니면 단지 인간이 복 받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에 대한 증언인가? 이제 우리는 성경이 진심으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가능한 구원의 길에 대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교회는 그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참된 교회임이 증거 되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부활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일보다는 여전히 교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명목을 앞세우며 교회 부흥을 추구한다면 분명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권위 있고 바르게 해석하여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곧 우리의 생명인 심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존재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